

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53.95 (-63.42)	703.80 (-24.4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72 (-0.001)	1466.20 (+13.50)

글로벌 수업체  
신형 전기차 라인업  
대거 공개  
04



## 소비 부진에 물가 치솟고, 등록금 오르는데 대출 옥죄다

### '사면초가' 민생 경제

12·3사태 후 대형마트 매출 10% ↓  
연간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  
환율급등에 외식업체 가격 줄인상  
대학교 등록금 인상도 줄이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거리에 주방 용품이 가득 쌓여있다. /뉴시스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지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12·3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10% 가까이 급감했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버텨내지 못하고 음식값을 인상하고 있다. 또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 행렬에 속속 합류하는 데다 은행권은 중산층·서민의 보루 중 하나인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 이른바 '관세 폭탄'을 개시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을 조준 중이고 우리 차례도 예정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각국이 찬 바람 몰아치는 경제상황에 맞서 적극 방어·역공 태세에 돌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있어 더욱 암울하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간소비는 최근 21년 사이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소매판매)가 2023년에 비해 2.2% 줄었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수가 360만 명에 달한 2003년(소비 -3.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9.3%나 감소했다.

소비 부진이 극명한 상황에 프랜차이즈 등의 외식업체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와 풀바셋을 비롯해 버거킹, 동서식품, 매일유업, 오뚜기, 대상 등이 가격 올리기 동참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 등으로 원재료 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두 가격 오름세에 따른 커피 값 인상이 두드러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아라비카커피의 평균 거래가격은 톤(t)당 7368.9달러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0% 넘게 뛰었다. 인스턴트 및 저가커피 원료로 주로 쓰이는 로부스터 커피의 t당 평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5213.5달러로

61% 올랐다.

가계 사정은 갈수록 조들리는데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100조5978억 원으로, 지난해 말(103조6032억 원)보다 3조 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대학들은 올해 '인상'으로 돌아섰다. 서울 지역에서 인상을 결정한 곳은 연세대(4.98%), 고려대(5.0%), 한양대(4.9%), 중앙대(4.9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0%), 서울시립대(5.49%), 국민대(4.97%) 등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에서 50여 곳이 2025년도분 등록금을 올렸다. 미정인 120여 대학 중 20곳 이상이 동결 탈피 기조에 추가로 뛰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와중에 미국발 찬 바람이 불어닥칠 기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다음 관세 표적이 유럽연합(EU)이라고도 했다.

미 행정부가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태까지 전화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 사법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경영 복귀로 '뉴 삼성' 탄력

###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최지성 등 피고인 13명 무죄 선고

그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며 경영복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등기이사 복귀와 신사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그간 밟아왔던 '뉴삼성'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 ◆2심 무죄, 사실상 사법리스크 해소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중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

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

아직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통상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 사실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뒤집히는 어려울 것이라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컨트롤타워 재건 촉각

8년간 이재용 회장의 발을 묶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회장은 조만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딥시크·트럼프 관세정책에 금융시장 출렁

코스피 2.52% 코스닥 3.36%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심화

코스피가 '딥시크 쇼크' 여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로 2450선까지 밀렸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70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2%(63.42포인트) 하락한 2453.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93%(48.63포인트) 내린 2468.74로 출발했고, 이후 낙폭을 키우며 장중 3.17%까지 밀려 2437.61까지 떨어지

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 대만 가권지수, 홍콩 항셱지수 등 주요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한 채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147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도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8707억원, 기관은 3729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만 1조127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4.40%), SK하이닉스(-4.17%), 삼성전자(-2.67%), 현대차(-1.94%) 등이 하락했다. 특히 LG전자는 장중 한때 전날 대비 7.84% 내린 7만76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7만8200원(-7.13%)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6%(24.49포인트) 내린 703.80으로 마감했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 안철수 "20조원 규모 AI 및 민생 추경 긴급 추진해야" /사진 뉴시스  
▲ 송미령 장관 "설 이후에도 가격 급등 품목 할인 지원 추진"

▲ 대선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  
▲ 최상목 권한대행 "野 반도체특별법 논의 제안 환영"

▲ 해군기동합대사령부 창설...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 정부, 한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집중 방역 나선다